NOVEMBER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바다무지개

2015년 11월호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殉國先烈—)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39년 11월 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이후 8·15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였고, 1946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1970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시 민간단체 주관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거행하였다. 그러다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오랜 여망과 숙원에 따라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부기념일로 복원되어 그해 11월 17일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해 오고 있다.

기념일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며, 보통 세종문화회관에서 생존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3부요인과 헌법기관의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및 공무원·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식순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국선열의 날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축시 낭송,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EWS

HRD 포커스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대회 4연패

5일부터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1,928명의 선수가 모바일로보틱스, 헤어디자인 등 49개 직종에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 종합우승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1개를 획득한 경기도가 차지해 대통령배를 수상했으며, 경기도는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준우승은 경상북도가 차지해 국무총리배 수상과 함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3위는 서울특별시가 차지해 고용노동부장관배를 수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 개최지인 울산광역시는 6위를 기록해 1999년 첫 출전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신라공업고등학교 대회 금탑 수상

다수 입상자를 배출한 기관에 수여하는 금탑은 금 2개, 은 4개, 동 1개를 획득한 신라공업고등학교(경북)가 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수상했으며, 대회장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 은탑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대구)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인천)가 수상했으며, 동탑은 나주공업고등학교(전남), 현대공업고등학교(울산),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강원)가 차지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열어갈 것"

한편 이번 대회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되며, 은메달과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대회장상과 함께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장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6만2천여 명의 선수를 배출하여 우수 숙련기술인 배출의 산실이 되어왔다"며"숙련기술인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학벌이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으며 실력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결과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skill.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51회를 맞는 2016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EWS**

정부 3.0 시대, 외국인인근로자를 위한 금융협업

2015년 10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공단 EPS센터에 현지인력을 파견하여 출국 전 사전 현지계좌 개설과 귀국 후 미청구 보험금·휴면보험금 수령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은행 해외 현지 영업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료 및 초기 국내 생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지대출 상품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우리은행과 협업하여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특례(H-2)비자를 통해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 소유의 장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매년 고용허가제 관련 행사 등을 통해 1~3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본국 방문 또는 귀국을 위한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매년 5만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의: 외국인보험교육팀 정광철 (052-714-8587)
홍보실 김현수 (052-714-8194)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ietnam EPS NEWS

미국, 베트남 의류 수출 절반 차지

2015년 10월 26일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개월 동안 베트남의 의류수출 규모는 약 170억 달러이며, 의류 수출의 절반이 대미 수출임.

○ 관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개월 동안 베트남의 대미 의류-섬유 수출 규모는 약 83억 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음. 이는 해당부문의 평균 성장률보다 10% 높은 수치임.

○ 미국의 베트남 의류 수입규모는 각각 20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일본(연간 6%상승)과 15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한국(연간 0.6% 상승)에 쫓기고 있음.

○ 베트남 의류생산업자들을 FTA 발효 및 TPP 협상 타결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수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TPP에 따른 관세혜택은 베트남 기업들의 미국 및 일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17-30%인 미국의 베트남 의류 수입관세가 TPP의 영향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임.

○ 베트남 대미 의류 수출규모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12-1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반면 타국 대상 미국의 의류 수입 성장률은 평균 3% 불과함. 베트남은 미국의 의류 총수입량의 9%를 차지하며 이에 베트남 의류회사들이 미국 수출 확대기회가 충분히 있음.

○ EU 역시 향후 베트남 의류수출의 핵심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며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EU 내 베트남 의류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베트남 의류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

○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 베트남-한국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 의류생산업자들은 더 많은 수출 증가기회를 얻게 될 것임.

○ 또한 관세인하 및 철폐혜택을 받기위해선 미국의 원사규정에 따라 베트남 혹은 TPP 가입 11개국에서 생산된 원사로 의류를 생산해야 하며 이는 베트남의 의류원자재 개발을 확대시킬 것임.

○ 그러나, 베트남 의류산업의 높은 수입원자재, 히 중국수입원자재 의존도가 가장 큰 문제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의류원자재의 약 50%가 수입원자재임.

○ 중국이 TPP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기업들은 미국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산 수입원자재 의존도를 낮춰야함.

○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베트남 내 3,000개 이상의 섬유의류기업중 약 25%에 불과한 외투기업의 수출량이 베트남 의류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함.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Oct 20, 2015]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ietnam EPS NEWS

베트남 국립하노이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한글날 기념행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개최

2015년 10월 09일

Vietnam National University 한국어학과 학과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 EPS Vietnam Center(센터장 송길용)과 함께 2015년 한글날 기념행사를 베트남 국립하노이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에서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행사로 한글날을 경축하였다.

【Vietnam, Ha Noi】 Huong Tran님이 Vietnam National University 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Vietnam Center에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EWS**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15년 10월 15일

【서울=뉴시스】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박성희 국제협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5.10.15.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5.10.15.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뉴시스】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15.10.15.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근로자와의 거리 좁히기, 화합과 나눔을 주제로 고용허가제 재도약(Restart)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dongA.com NEWS

외국인 고용허가제 11년…
中企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

유성열기자
입력 2015-10-12 03:00:00 수정 2015-10-12 03:00:00

15國과 MOU… 불법체류율 80%→16% ‘뚝’
“단순 노무직만으론 시너지 부족… 이젠 숙련 인력 유입 노력 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한 제조업체 사장 김모 씨는 11일 “청년들이 3D 업종이라고 피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피하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년 전 김 씨의 회사는 경영난을 겪었다. 제품 주문이 들어와도 직원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김 씨가 다시 일어선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다. 이후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었다면 그냥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1년째를 맞았다.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인권 침해, 불법 체류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타국 정부와 직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근로자 도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현재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총 15개국과 MOU를 체결했고, 근로자 선정부터 알선까지 직접 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의 원인이었던 각종 비리와 브로커들의 활동이 줄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6월 중소기업 77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4.9%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유로 ‘내국인 근로자가 없기 때문’을 꼽았다. 고용허가제 시행 전 80%에 육박했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율도 최근에는 16.3%까지 떨어졌다. 청년들이 ‘3D 업종’과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체류 문제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숙련기능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정밀한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외국 인력 공급 정책과 내국 인력 활용 제고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입력 : 2015.10.15 14:01 | 수정 : 2015.10.15 14:0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좌장을 맡아 경총·노총대표, 학계 전문가, NGO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패널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 설동훈 전북대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향상방안과 고용부담금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세미나에 이어 오는 18일 안산 호수공원 중앙공연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에 관한 OX퀴즈대회와 K-POP경연대회가 개최된다.

행사 중에는 지난 4월 대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국민 돕기 성금모금 행사도 진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책브리핑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근로자의 화합과 나눔
고용허가제 11주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0월 15일(목)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서울 광진구)에서「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행 1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근로자와의 거리 좁히기, 화합과 나눔을 주제로 고용허가제 재도약(Restart)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관련 유관기관과 15개 송출국가 주한 대사관 관계자, 현지 송출기관 관계자,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등이 참석하여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총·노총대표, 학계 전문가, NGO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패널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향상방안」과「고용부담금제 연구」성과를 토대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조사에 응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만족도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그들의 제도에 대한 평가도 후한 편이었다.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이 교체순환형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특화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정착이 가능한 이민자와 고숙련 외국인 전문기술자에 대한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고용부담금제의 제도설계방식,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경영계.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을 가졌다.

고용허가제 11주년 세미나와 더불어 18일 안산 호수공원 중앙공연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과 더불어「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한마당」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행사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에 관한 OX퀴즈대회와 K-POP 경연대회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각 송출국가별 대사관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국을 친근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송출국가 근로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15개 송출국가 과일을 한데모아 만드는 화채 만들기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번 행사 중에는 지난 4월 대지진 피해를 입은「네팔국민 돕기 성금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 종료 후 모금된 성금을 네팔 대사관에 전달한다.

이 날, OX퀴즈대회와 K-POP경연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근로자 서티아완씨는 "힘든 타국 직장생활의 시름을 잠시 잊고, 여러 나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며 "이런 한마당 행사가 자주 열려 한국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리치니스 강영준 대표는"외국인근로자들이 한마당 축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며"이방인이 아닌 친구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다"며,"2011년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으로 검증받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화합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공 : 외국인력총괄팀 이우진 (052-714-8542)
홍보실 김현수 (052-714-8194)

KBS

“고용허가제 도입 11년…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율 16%로 감소”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늘 개최한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80%에 육박했지만 올해 2월에는 16.3%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 39만여 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 체류가 보장되고, 사업주 동의에 따라 근무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고]고용허가제 11주년에 즈음하여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이찬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외국인고용지원팀장)

이찬우(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외국인고용지원팀장)

8월 17일은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1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문제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시행 후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약 47만 명이고, 경남의 경우 3만6000명 정도 일하고 있으며, 해당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이다.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첫째,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인력 도입·알선 등의 과정에서 공공부분이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직접 관리함으로써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이 이뤄짐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넷째,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해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취업활동 기간을 제한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주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그렇기에 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 및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경남에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문화공간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늘리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동등하게 대할 때 이뤄질 것이다. 고용허가제 11주년을 맞이해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를 지역이나 국가 성장에너지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할지 새로이 방안을 논의하고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아시아투데이

고용허가제 효과...불법체류율 10%대로 감소

김시영 기자
| 기사승인 [2015-10-15 20:10]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2004년부터 실시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불법체류율도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80%에 육박했던 불법체류율은 올 2월 기준 16.3%까지 떨어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북대 설동훈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각각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향상 방안'과 '고용부담금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993년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인권 침해, 불법체류 등 문제를 불러일으켜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공부문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책임지도록 한다.

체류기간은 기본 3년을 보장하며, 사업주 동의 하에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4년 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본국에 3개월 다녀온 후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발급 요건인 5년 연속 거주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을 합쳐 39만여명으로 추정된다.

kimsy@asiatoday.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ietnam EPS NEWS**

하노이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2015년 10월 16일

제 4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본선에 진출한 모든 학생에게 축하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Chúc các em SV tự tin chiến thắng ☐

Huong Tran님이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 Noi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장학문화재단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KUMHO ASIANA
ĐẠI HỘI 2015
KOREAN SPEECH CONTEST
THI NÓI TIẾNG HÀN LẦN THỨ 4

ĐẠI HỘI 2015
KOREAN SPEECH CONTEST
THI NÓI TIẾNG HÀN LẦN THỨ 4

고용허가제 11주년, 함께 어우러진 어울림 한마당 (동아일보 2015-10-21)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송출국 관계자 워크숍, 한국 문화 페스티벌 등이 열렸으나 일반 국민들도 함께 즐길수 있는 축제로 준비된 것은 올해가 처음.

"고용허가제, 고마워요!"

이달 18일 경기 안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에서 울린 목소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11주년을 맞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15개국 근로자, 안산 시민 800여 명이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근로자들은 인천 대구 광주 경남 경기 충남 등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송출국 관계자 워크숍, 한국 문화 페스티벌 등이 열렸으나 일반 국민들도 함께 즐길수 있는 축제로 준비된 것은 올해가 처음.

“우리 팀이 최고!”... 내·외국인 근로자 진한 동료애

이 축제에는 동료들 간의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내·외빈들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화합을 위한 화채를 만들었고, 각국 근로자 대표들이 이를 먹으며 동료애와 나눔을 느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고용허가제 등에 대한 OX퀴즈를 통해 서로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정답을 맞힐 땐 환호성을 질렀다. 또 케이팝(K-pop) 경연대회를 통해 서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모두 함께 즐기는 '어울림 한마당'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내·외국인 구별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호수공원에서 개최됐다. 네일아트 한국 전통의상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행사 진행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15개 송출국 대사관 및 송출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각 나라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11주년을 맞이해 내·외국인의 화합을 위해 준비됐다"며 "모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상호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에서 기념품으로 배포한 배지. 태극기와 외국인 근로자 고향 국가의 국기로 디자인해 참석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보도자료

[2015. 10. 21. 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이주노동 현장 목소리 담은 <고용허가제의 그늘> 자료집 발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대표의원)은 현행 외국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짚은 '고용허가제의 그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욕설과 폭행, 임금체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등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주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책으로 담았다. 제1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연혁을 비롯한 일반현황을, 제2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 변경의 부당함 등 크게 일곱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또한 UN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해 권고한 사항까지 수록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반영하여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부처·기관 그리고 전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이 잘 살면 한국인은 더 잘 산다'는 어느 이주노동자의 외침처럼 이주노동자를 한국의 인력 부족을 잠시 메우기 위한 이방인이 아닌, 한국과 송출국 경제 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부족한 내용도 많지만, 이주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는 만큼 이 책자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다정다감포럼 회원명단 첨부)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회원명단>

대 표 의 원 : 이자스민(새누리당)
연구책임의원 : 윤명희(새누리당)
정회원 : 강창희(새누리당), 김명연(새누리당), 박성호(새누리당),
신의진(새누리당),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이에리사(새누리당),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조명철(새누리당), 황영철(새누리당)
준회원 : 황우여(새누리당), 박병석(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심재철(새누리당), 이주영(새누리당),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안홍준(새누리당),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장윤석(새누리당), 신성범(새누리당),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김정록(새누리당), 문정림(새누리당),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송영근(새누리당), 신경림(새누리당),
이만우(새누리당), 이운룡(새누리당),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홍지만(새누리당), 함진규(새누리당)

특별회원 : 고선주 전문위원(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김성회 공동대표(한국다문화센터),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이선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준식 이사장(아시안프렌즈), 김해성 대표(지구촌사랑나눔), 김현미 교수(연세대학교), 박정해 변호사(법률사무소 허브), 안지민 교수(영남이공대학교), 오성배 교수(동아대학교),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판 공감), 이규용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이승미 교수(우석대학교), 이진영 교수(인하대학교), 장흔성 센터장(구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기선 연구위원(IOM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부연구위원(IOM 이민정책연구원), 차윤경 교수(한양대학교)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NEWS

무료 이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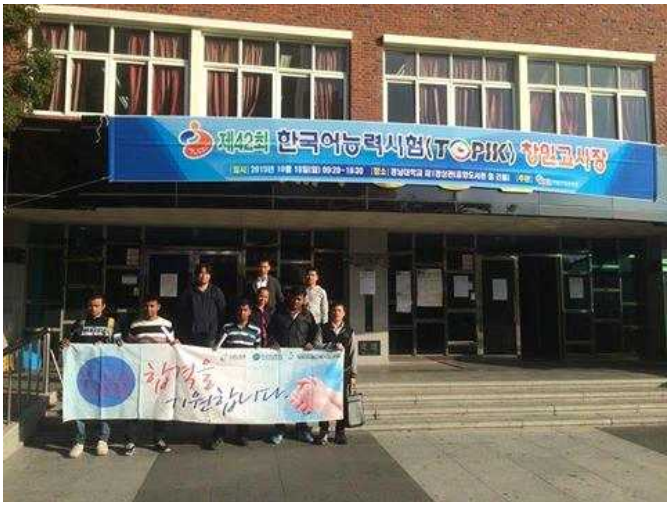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경남 봉사미회 분들과 함께 외국인력분들을 위한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멋지고 깔끔한 멋쟁이로 변신했습니다. ^^

일 시 : 2015.10.11(일) 08:40 ~ 12:40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제 42회 TOPIK시험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2회 TOPIK 시험에 응시한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한국어 실력도 검증받고, TOPIK 2(급 이상) 합격을 목표로 하여 비자변경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TOPIK 시험에서, 응시한 모든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 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일 시 : 2015. 10.18(일) 08:00~18:00
장 소 : 경남대학교 경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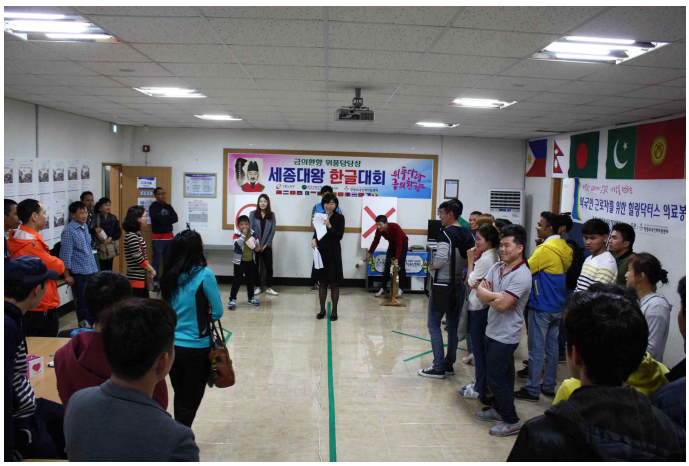


세종대왕 한글대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며, 세종대왕 한글대회 (O,X퀴즈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시는 수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참가하셔서 퀴즈대회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글날도 기념하고, 한글도 배우고, 외국인력분들에게 필수적인 고용보험에 관한 지식도 쌓고, 한국문화와 역사도 배우는 일석사조의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30분은 안산에서 열리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O,X 퀴즈에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의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한글대회 – OX 퀴즈"

□ 일 시 : 2015년 10월 11일(일) 11:00~12:00 / 14:00~15:00
□ 내 용 : "세종대왕 한글대회 – OX 퀴즈"
□ 장 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다목적 홀
□ 참가대상 : 참가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 200명
□ 참가혜택 : 퀴즈대회 성적우수자 30명은 칫솔세트 증정
및 2015.10.18.(일)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참가 기회 부여



운전면허교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운전면허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원서접수를 준비하면서 원서접수 작성 방식을 연습해보고 남은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시험을 위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운전면허 시험을 향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외국인근로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일 시 : 2015. 10.11(일) 12:00~13:00
장 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다목적 홀
대 상 : 운전면허 교실에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운전면허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직접 원서를 작성해보고, 원서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의 뜻 과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모두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2015. 10.18(일) 12:00~13:00
장 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다목적 홀
대 상 : 운전면허 교실에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과 내국인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으로 따뜻한 고용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최아래 전국 센터에서 모인 수많은 외국인력분들과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하며 더욱 열띠고 즐겁고 행복한 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사는 다음과 같이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1부 화합과 나눔의 행사(화채만들기)
- 2부 O, X 퀴즈대회(한국문화와 역사문제, 고용허가제 문제)
- 3부 K-POP 부문

특히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K-POP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코에룬" 씨와 CFC 응원단의 열정적인 활약으로'우수상'을 획득하며 상금70만원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욱 값진 보람과 기쁨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 일 시 : 2015년 10월 18일(일) 13:30~17:30
2. 내 용 :

- 1부 화합과 나눔의 행사(화채만들기)
- 2부 O, X 퀴즈대회(한국문화와 역사문제, 고용허가제 문제)
- 3부 K-POP 부문

3. 장 소 : 안산호수공원 중앙공연장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2015 EPS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workshop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의 workshop이 있었습니다.
김현생지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이명희 센터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신 후, 김승환 노무사님의 '노무관리 기법 실무강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 남정순 팀장님께서 '농축산업 사업장 현장사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시간을 가진 후 workshop을 마쳤습니다.

2015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경상남도 도청과 함께
2015 외국인근로자 경남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3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과 관계자
총 162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성대한 투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센터에서 출발하여, 통영과 거제 일대를 누비며,
장사도에서 유람선도 타고, 최고급 뷔페를 맛보고, 유명한 케이블카 까지 체험해 보는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남의 외국인력분들이 경남의 멋과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고 체험하여, 경남 지역의 지역민으로써 거듭나고 한국의 문화와 멋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5. 10.25(일) 07:30 ~ 18:30
장 소 : 통영, 거제 일대
참여대상 : 인도네시아 76명, 네팔 38명, 중국 38명
참여인원 : 외국인근로자, 도청, 도경, 센터직원 등 162명

2015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2015 이동PC 운전면허 필기시험

오늘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하는
2015 이동 pc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센터에서 7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전 10시부터 운전면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교육 후 순서에 따라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아쉽게 떨어진 근로자여러분들은 다음시험에는 꼭 운전면허시험에 모두 합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험 치신 모든 근로자분들 수고하셨고, 기능 시험과 도로주행도 잘 준비하셔서 꼭 면허를 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 시 : 2015년 10월 25일 (화) 10:00 ~ 16:00
장 소 : 창원외국인지원센터 다목적홀
응 시 대 상 : 운전면허교실 참여 학생 및 외국인근로자
응 시 자 수 : 외국인근로자38명

< E-9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대한 상담 >

중국 상담통역원 : 최영애

○상담개요

- 중국근로자 A씨와 B씨는 2015년 5월 19일 부터 평택 **사업장에 근무하였는데 8월말 사업장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함.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3개월의 급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함. 퇴사 전에 12일 급여(약 84만원)를 못 받아 상담 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3개월 급여 보상금 제도가 없음, 단 근로계약상에 기재되면 따로 확인 할 수 있음. 미지급 임금은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확인가능함.
- 센터에서 근로자가 제공해주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외국인고용EPS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사업장명칭은 주식회사 D사업장이며, 확인한 전화번호로 사업장에 전화해보니 연결이 안 됨. 그러나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할 수 있음, 근로자의 실업 대해 창원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니 외국인근로자 내국인과 똑같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함. 단 근로자가 이미 구직했을 경우 신청 불가능 함.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을 가입이 하고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음, 단 E-9비자을 가진 근로자는 3개월 구직기간 제한 있음. 또는 실업교육을 받아야 됨을 안내 함.
-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애로사항 있으면 센터에서 도와주기로 함.

2. 상담포인트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변경 할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실업급여 신청 가능 단, E-9비자근로자는 3개월 구직기간 유의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시"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변제.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하여 근로감독관조사 확인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함.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임금체불경우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국가 체당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지급금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1.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 .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3. 채무자가 임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관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2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30.>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NEWS**

KOICA
직업훈련사업 성과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및 경제발전 지원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며 청년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 등 을 목표로 세계 각국에서 진행 된 'KOICA 직업교육훈련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여러 개 집계되고 있다.

1991~2015년간 85개국에
총 7억불 규모 지원

1991년 코이카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KOICA 직업훈련교육사업'은 통합형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설립 지원 (48개국 103기관, 4.2억불), 초청 연수를 통한 수원국 역량개발 (85개국 공무원, 직업훈련교사 2,179명), 우리기업 및 NGO와의 공동 민관협력사업 (31개국 121건), 직업훈련 분야 WFK 봉사단 청년인재 파견(45개국 5,226명)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진행되어 왔다.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물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수원국 공무원과 교사들을 초청하여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청년인재들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의인적 분야를 아울러 지원했다는 점에서 사업성과가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성과

> 개도국 산업특성별 맞춤 지원과 우리기업과의
> 전략적 협업 및 청년인재 해외진출 기회 제공

'KOICA 직업교육훈련사업'은 공여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식이 아닌, 개도국 국가별 산업특성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인 사업들이 많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산업화 단계 국가에는 기계, 전기 등 제조 분야를 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동 국가는 자동차 정비 분야 등*현지 시장 수요가 높은 부분에 부응을 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자동차 드림센터,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 삼성전자 여성직훈원, 웹캐시 IT 교육 등 우리나라 기업의 CSR 사업 사례들은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해외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 시 기업 수요에 적합한우수 현지 인력 양성 및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WFK, UNV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되는 직업훈련 분야 청년인재들이 컴퓨터, 전자 등 개도국 직업훈련교사로 활동하면서 개도국 언어및 문화 이해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현지 창업 등(2013년 집계로 199명이 진출)의 적극적인해외진출이 활성화되었다. 개도국의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청년들의 경력개발에도 기여한 점도 이 사업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수사례

사례 1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7년 ~ 2012년 400만 불)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한국의 축적된 직업훈련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시스템의 질적개선,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

❑ 사업대상지 및 수혜자

- 타슈켄트 시 세르겔리 구/연간 360명의 졸업생 양성을 통해 2012년 개원 이후 약 1,500여명의 기능인력 양성

❑ 주요 사업내용

- 직업훈련원 건립(면적 : 7,000㎡)
- 4개 공과별 (IT,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교육 실습 기자재 지원 및 운영 노하우 전수 (전문가, 연수생)
- 봉사단원 활동 연계로 지속적인 재교육 및 모니터링실시

사업 성과

❑ 수혜국 경제적, 사회적 효과

-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현안의 하나인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에 기여

> • 연간 360명이 졸업, 2012년부터 연 1,500명이 졸업하여 93%가 취업에 공하고 있어,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이 75%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취업률 달성또한, 졸업생 소득 조사 결과 직업훈련원 입학 전과 비교했을 때 약 40%의 소득 증가율 *법정 최저임금 대비 5배 이상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 직훈원을 주재국 내 무상원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대내외에 알리고 있으며, 현재 건립 중인 사마르칸트, 사흐리삽즈를 포함, 전국 5개 권역별 직업훈련원 건립을 우리 정부에 요청

❑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양국 간 우호관계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정치적,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국익증진 기대

❑ 현지에서의 평가 및 반응

-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KOICA 이사장 면담 시(2015.5.29) KOICA 없이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을 논할 수 없으며, KOICA와의 협력은 우즈베키스탄에 경제·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우즈베키스탄이 벤치마킹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역시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사례 2 |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2010년 – 2013년 600만 불)

사업 개요

- 모로코 정부 중기 산업인력 양성계획에 부응, 국가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IFMIAC) 학생 및 교사 등
- KOICA와 프랑스 원조청 AFD가 각각 600만 불을 투입
- 자동차 직업훈련원 건물을 신축하고, 동 훈련원 내 3개 공과를 설치(자동차, 자동화 시스템, 기계)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훈련원 실습장비 등) 및 소프트웨어 지원(기술전수 및 운영 노하우 등)

사업 성과

- KOICA와 프랑스 원조기관 AFD가 각각 600만 불을 지원하여 건립된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의 자동차 직업훈련원
- 자체 Value Chain을 형성하여 재정적으로 독립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
- 모로코 정부가 동 훈련원을 모로코 자동차 직업훈련의 모델로 삼고, 자체적으로 같은 모델의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타 지역에 보급 중(3개의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건립 중)
- 2015년 최초 졸업생 배출예정으로 150명 전원 사전 취업이 보장된 상태(자동차 산업협회 회원사가 채용을 전제로 교육생을 선발)인 바, 청년 고용증진을 통한 사회 안정과 자동차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년제 정규 과정 외에,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단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
- 학생들이 공산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익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재정자립성 제고
- 학생들이 실습 차량으로 한국 차(현대차)를 사용함에 따라 모로코 내 한국 차에 대한 수리능력이 제고되어 우리 차의 수출 잠재성 향상
- 우수 ODA 사례로 영국, 일본 등에서 자국 직업훈련원 사업을 위한 모델로 벤치마킹
- A. Soubail 모로코 노동부 장관은 모로코 최대 일간지 인터뷰(2010.6.18)를 통해 동 사업은 노동부 최우선 지원 사업이며,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열정, 기술, 노하우 등 한국의 기술한류가 카사블랑카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사례 3 |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 바그람 직업훈련원 지원사업(PRT 사업)(2008년 ~ 2013년 2,680만 불)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바그람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직업훈련을 통한 바그람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준 향상 및 아프간기술 인력의 개발, 취업기회 제공과 경제발전 기여
-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 및 인근 지역 주민
- 직업훈련원 건립
- 5개 공과별(자동차, 용접, 건축, 전기, 컴퓨터) 교육 실습 기자재 지원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연수생,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 성과

- 현장수요를 반영한 맞춤교육을 위해 현지기업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현장 실습위주의 교육 훈련 실시
- 영어와 컴퓨터 등 기초교육을 통한 취업 핵심역량 배양
- 미군 자원봉사 영어교수를 초빙해 한,미,아프간 3국 협력을 도모하는 등 3국 협력도모
- 개원 이래 4년 동안 439명의 정규 과정 졸업생을 배출, 이 중 402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91.6%의 취업률 달성
- 대부분 취업생이 FLUOR, YUKSEL, CONTRACK, AC First 등의 다국적 엔지니어링 및 건설회사에 고임금으로 취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 한국의 선진화된 직업훈련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함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홍보해 한,아프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
- 직업훈련원에 대한 기지 주변 주민의 호의적 반응 확산으로 기지 안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직업훈련원의 가시적 성과가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
- 아프간 대통령, 노동사회부 장관, 파르완 주지사 등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전례에 없는 수차례 감사장 수여
- 동 직업훈련원을 아프가니스탄 내 직업훈련사업으로 모델화하기 위한 USAID의 벤치마킹 노력

몽 골 세계기능대회참가 역량강화 연 수 사 업

사업 개요

- 세계기능대회 과제를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몽골 국가대표 선수, 지도교사의 역량강화 및2015 브라질 세계기능대회에서 소기의 성과 달성
- 몽골 세계기능대회 6개 공과(조적, 타일링, 목공, CNC선반, 옥내제어, 용접) 국가대표 선수 6명, 6개 공과별 교사 6명, 노동부 홍보실, GIZ 몽골 사무소
- 프로그램 조정관, KOICA 몽골사무소 ODA 전문가 등 3명
- KOICA는 독일 GIZ와 협력하여 몽골의 2015년 브라질 개최 세계기능대회 참가를 지원코자
  ① 세계기능대회(WorldSkills) 회원가입
  ② 몽골 국내기능대회 개최
  ③ 9개 분야(조적, 타일링, 목공, CNC, 전기, 용접, 요리, 미용, 이용) 국가대표 선발
  ④ 몽골 국가대표 선수 한국 초청연수(2014.10월, 2015.6월) 및 기술경쟁력 제고
  ⑤ 2015년 8월 브라질 세계기능대회 참가추진 등 순차적 지원 중

사업 성과

- 한국이 70~80년대 산업발전을 이룩한 데는 독일로부터 원조 받은 직업훈련원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기능대회에서 연속 18년간 종합우승과 이들 숙련공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우리의 기능올림픽에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과거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독일 GIZ와 공동 파트너십 하에 '몽골'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함으로써 과거 우리의 수혜경험을 국제사회에 환원
- 동 사업은 세계기능대회 최다 우승국인 한국 및 우수 직업훈련 공여국인 독일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몽골 노동부 장관 및 일반인의 관심이 크며, 향후 몽골 내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직업훈련 저변 확대가 기대

사례 5 | 현대-KOICA 자동차 드림센터 사업 (2014년 ~ 2015년 4억 원, 7억 4천만 원)

사업 개요

-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구축을 통해 24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동차정비 기술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및소득창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캄보디아 프놈펜, 가나 아크라/직업훈련원 전자정비 학생, 교사, 산업체 등
- 자동차 교육환경 개선 및 기자재 지원, 학생들의 빈곤지수 감소 및 취업 가능한 청소년 양성

사업 성과

- 동 사업은 KOICA의 기업협력프로그램(PPP)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KOICA와 기업이 5:5 비율로 재정 부담 하에 추진되고 있는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 출(CSV)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18~24세 240명 청소년(연인원, 여성비율 : 20%)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소득 창출기회를 제공
- 캄보디아 프놈펜의 24세 미만 청소년 140명(2년제 40명, 단기코스 100명, 여성비율 15%)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소득 창출기회 제공
- 가나 아크라의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실시
-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가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
- 동 사업을 통해 배출된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들의 한국 자동차 정비기술이 향상되어 우리 차의 현지진출 잠재력을 증대
- 기업 CSR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기업홍보를 통한 상품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례 6 | 웹캐시-KOICA캄보디아 프놈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 : KOICA-웹캐시 (2013년 ~ 2014년 13억 9천 : KOICA 8억 3천, 웹캐시 5억 6천)

사업 개요

- IT 전문 교육센터 설립 및 소프트웨어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IT 산업 활성화와경제성장 동력육성
-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교 내 HRD 센터/ 대학교 IT 전공학과 학생 및 캄보디아 전 국민
- 캄보디아 최고 수준의 SW 개발 전문가 양성 및 취업연계
- 온라인 IT 교육 시스템 개발 (www.khmeracademy.org)

사업 성과

- 동 사업은 KOICA가 지원한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교 내 HRD 센터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IT 전문센터로, 연 100명의 한국어가 가능한 최우수 IT 인력 배출 및 국내 SW 기업의캄보디아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1,2기 졸업생 143명은 IT 고급인력으로 100% 취업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한국 내 안랩 등 취업, 유학 등을 통해 지한.친한 인력에 기여(27명 한국 내 기업 취업, 3명 유학)
- KOSIGN(한국기업)에 인력을 제공, 현재 SW 아웃소싱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
- 동 과정을 통해 육성된 인재들이 국내에도 취업을 하고 우리나라 SW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
- 입학 경쟁률 10:1 이상 캄보디아 최고 IT 교육센터로서의 브랜드 위상 확보
- HRD 센터 관련기사 17회, Khmer Academy 관련기사 4회 게제, SNS 회원 수(HRD센터 11,406명, Khmer Academy 6,751명)를 확보

이 집 트
한국어분야 봉사단파견사업

사업 개요

- 이집트 내 한국어 봉사단 파견을 통해 한-이집트 간 상호교류, 협력관계 구축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취업률 증대, 현지 기업진출 지원
- 헬완 대학교 관광학부, 룩소르 호텔 및 관광고등교육원, 카이로 소재 아인샴스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한국기업, 교민 등
- 한국어 교습, 한국역사, 문화 소개 등

사업 성과

- 아랍지역 최초 정규 4년제 한국어 전공학과 개설(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이집트의 고용구조와 연계된 한국어 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률 향상
- 2005~2013년까지 총 51명의 한국어 봉사단 파견을 통해 이집트 경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 분야 취업률 향상
- 이집트 내 일자리 창출(한국 기업 및 공관 취직, 관광 분야 종사 등 이집트 진출한 거의 모든 한국기업에 아인샴스대 한국어과 출신 포진) 및 소득증대
- 이집트 진출 한국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 이집트 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적자원 증가로 인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 한국기업 이미지 제고, 우리 상품수출 활성화에 기여
- 이집트 현지인 한국어 구사자들 중 한국어과 학생들의 독보적 실력 보유
- 카이로 외 이집트 전역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 확장 기대(룩소르, 포트사이드 등 이집트 지리.사회적 이점 상 남부 아프리카 국가까지 수요 확장 가능성 有)

KOTRA NEWS

문 열린 방글라데시 軍 조달시장, 블루오션으로 부상

- 日·美 독식 깨고 200억 원 수주 성공 -

- 저개발 개도국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주목해야 -

□ 방글라데시 육군 조달, 200억 원 계약 확정

○ 한국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방글라데시 육군 입찰에 참여한 결과, 지난 6월 말 버스 지프차·특장차량·굴착기·타이어 등 분야에서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 후 약 3개월의 협상을 거쳐 총 200억 원 이상의 계약 체결을 확정

조달업체 선정 절차

- 기술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 응찰업체(lowest bidder)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계약시점까지 최종 가격협상을 진행해 체결하며, 이때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금(PG)을 납부해야 함.
- 최저가 응찰 → 우선협상자 선정 → 계약 체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탈락한 경쟁자들의 방해를 방어하는 것. 경쟁사들은 결과를 뒤집거나 혹은 입찰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최저가 응찰한 기업 제품의 품질, 기업의 경영 상태, 에이전트의 신뢰성 등을 들어 음해에 가까운 로비를 함.

□ 국가등급 조정 후 만들어진 성공사례

○ 방글라데시 군은 입찰에 국가등급제를 적용해 그동안 한국은 2013년까지 중국 등과 함께 B등급에 포함됐고, 수송장비·기계류 등 경쟁력 있는 많은 품목에서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받았음.

- 이 결과 시장은 일본,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이 시장을 독식

○ 그러나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과 KOTRA의 협업을 통해 2013년말 한국의 국가등급이 A등급으로 높아지고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현지 조달 에이전트의 한국을 향한 러브콜이 대폭 늘어났음.

- 이후 KOTRA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방글라데시 조달시장 진출기업 POOL' 제도를 운영, 유망 입찰건 발굴· 전파, 유력 에이전트 소개, 사전등록(standardization)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

○ 2014년 방글라데시 육군참모총장 등 고위급 인사의 방한 지원 및 방글라데시에서 최초로 '군 조달시장 로드쇼'를 개최해 우수한 한국 제품을 방글라데시 현지 최고위 인사에게 적극 홍보한 것도 우리 기업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

사전등록제(standardization)란?

- 군이 정기적으로 조달하는 품목(예: 차량)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제한입찰을 실시하며, 이미 사전에 품질 등의 검증을 마친 제품만 참가가 가능

- 일례로 육군이 조달하는 차량 입찰에 한국이 참가하는 경우, 한국은 국가등급 상향으로 이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됐음.

- 그러나 제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기업자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전등록 돼야 하며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심사를 한 후 최종 등록 여부 결정

- 이 절차를 통과하면 이후 입찰에 언제라도 참가할 수 있음.

- 발주처 입장에서는 매년 건건이 심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차단하는 방어막이 됨.

□ 군 조달 시장 진출의 의의

○ 방글라데시 민간부분은 의류업을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매우 미미해 공산품의 수입비중이 매우 높음.

- 소득 수준이 낮아 '우수한 품질+선진국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제품이 진입하기 어려워 대부분 중국, 인도 제품들이 수입됨.

○ 민간 부문의 수입 구매력이 높지 않은 반면, 군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공공부문은 원조자금 등에 힘입어 가장 큰 바이어로 자리매김

- 정부 예산 자료를 추정해보면 방글라데시 군 연간 조달 규모는 8억 달러 정도이며, 그 중 국제입찰이 약 70%로 약 5억6000만 달러 수준임.

○ 군 조달에 있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선진국 제품과 대등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임.

- 입찰의 특성상 군이 요구하는 기술사양을 갖추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만으로 최종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민간시장과 달리 우리 기업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됨.

□ 시사점

○ 방글라데시 군 조달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

- 한류가 아직 미치지 않은 국가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음.
  · 같이 식민지 시대를 거쳤던 가난한 나라인데 (방글라데시는 1972년 파키스탄에서 독립)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선망이 있음.
- 방글라데시 군의 경우, 전통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 중의 하나로 지출 규모도 크고 UN 평화군 참가 등으로 인해 재정이 탄탄한 편임. 따라서 대금 미결제 등 후진국에서 흔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은 편
- 다수 국가가 채택하는 자국산 우대(Local Contents Rule)가 별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제조업 발달이 미진해 생긴 반사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시장

- 아직 우리 기업에는 방글라데시 조달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많이 떨어짐.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더 많은 수주 실적이 기대됨.
- 올해 11월 16~17일에는 제2회 군조달 로드쇼를 방위사업청과 협업으로 개최하며, 우리 기업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CFC 11월 행사 안내

첫째주

- 필리핀 음식커뮤니티(10:00~13:00)-주차장
-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행사 이동상담 (13:00~17:00)-사천시 실내체육관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4:00~16:00)-센터상담실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제 2차 운전면허 필기시험(10:00~)-다목적홀
- 법인 일일찻집 행사(12:00~21:00)-통도사 자비도량
- 산업현장 한국어교실(1회차)-STX 중공업

둘째주

- 각국 리더간담회(11:00~13:00)-센터상담실
- 제 18회 무료이미용서비스(09:00~)-교육실복도
- 힐링닥터스 무료진료(15:00~17:00)-다목적홀
- 바다무지개 동아리 LG세이커스 농구관람(14:00~)-창원실내체육관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산업현장 한국어교실(2회차)-STX중공업

셋째주

- 창원병원 무료진료(15:00~17:00)-다목적홀
- 제43회 토픽시험(08:00~)-경남대학교 경상관
- 외국인력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조사(09:00~18:00)-센터상담실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1:00~14:00)
- 산업현장 한국어교실(3회차)-STX중공업
- 경남불교사회복지회 종사자 연찬회(14:00~20:00) -마산 웨딩그랜덤

넷째주

- 베트남근로자 귀국 성공사례 발표(10:00~11:30)-다목적홀
- 하반기 법률교육실시(12:00~13:00)-교육실
- 마산대학 건강상담(15:00~17:00)-다목적홀
- 생일축하행사(15:00)-교육실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네팔기능시험지원(11/23~12/2)
- 산업현장 한국어교실(4회차)-STX중공업

다섯째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함께하는 김장체험 · 나눔 행사(10:00~)

CFC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후 원 계 좌 >

경남은행 513-07-0195121

예금주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